면류관 얻는 관계 맺기

(스가랴 6:1~15)

9.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0.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11.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12.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3.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14.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15.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면류관 얻는 관계 맺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면류관 얻는 관계 맺기'

삶은 관계를 통해서 채워지고 진행되어 갑니다. 관계가 곧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관계를 맺든지 모든 관계에서 면류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은 파트너와 관계를 맺게 되고 파트너의 역량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익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윈윈(win-win)이나 상생이 언급됩니다만 결국 남을 살릴 때에 나도 살 수 있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사업과 관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목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기쁨을 얻으며 행복하게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에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도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까지 여덟 가지 환상을 연속적으로 본 뒤에 결론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소한 방법을 통해 이제까지 나타난 환상의 결론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삶을 채우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표시(token)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스 토큰이 화폐에 대응하는 표시듯이 본문에서 언급된 면류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 때에 면류관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담담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탄성이고 외침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만 우리는 면류관 받는 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이나 봉사 혹은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우선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수주일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일들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모든 일은 율법주의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헌금 봉사 구제 헌신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에서 나올 때에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가를 기대하는 율법주의적 행위로 변질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행동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율법주의적이며 불법적이고 오류투성이의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행동은 하나님으로 기쁜 상태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면류관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생소한 표현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하늘보좌로부터 이 세상을 향해 부는 네 개의 바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바람이 네 개의 병거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라고 하였습니다. 바람이 병거로 비유된 이유는 바람이 불 때에는 미세먼지든 낙엽이든 무엇인가를 싣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병거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6~7절을 보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색깔에 유념해서 이 환상을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언급되었지만 뒷부분에서는 붉은 말이 사라지고 검은 말과 흰 말이 언급 된 후에 어룽진 말과 건장한 말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대상은 말의 색깔이 아니고 말들이 향한 곳입니다. 8절을 보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북쪽은 앗수르, 바벨론, 바사 등의 중근동지역의 패권 국가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던 지역입니다. 한편 어룽진 말이 향한 남쪽은 애굽을 뜻합니다. 우리나라가 북방의 대륙세력과 남방의 대양세력 사이에 끼어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쪽 세력과 남쪽 세력 사이에 끼어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되면 강대국조차도 먼지처럼 흩날리리라는 말씀입니다. 선민은 앗수르를 막중한 무게감을 가진 강대국으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라들의 흥망에 관여하시는 것을 마치 쉬시는 것처럼 간단한 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신경 쓰시고 무겁게 관여하시는 일은 선민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선민 한 사람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영은 쉬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다시 말해 관계의 바람이 불 때에 견뎌내는 사람이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참 생소하고 특이한 면류관이라는 소재를 통해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 시점에서 앗수르는 이미 망하고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낙엽을 날려버리듯이 날려버리신 것입니다. 바벨론도 온 세계를 정복할 듯 기세를 떨쳤지만 바사에 망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힘들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바람을 보내실 때에 견뎌낼 수 있는 자들이 면류관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싸움에서 이긴 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싸움에서 이긴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렇다면 스가랴가 말하는 면류관을 받기 위한 싸움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에 날려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 11절을 보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라고 하였습니다. 원문을 보면 면류관은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할 때 쓰는 관이나 사모가 아닙니다. 이 단어 자체가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가 하나밖에 없는데도 복수로 언급된 이유는 여호수아가 무

리의 대표로써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3장 8절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분리 될 수 없는 하나의 무리로 묶고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제사장 무리 전체가 면류관 수여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을 보면 포로생활을 하다가 유다 땅으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서 굳이 몇 사람이 특정됩니다. 10절에서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라고 하였습니다. 헬데라는 사람은 14절에서는 헬렘이라는 별명으로 언급이 되고, 요시아라는 사람은 헨이라는 별명으로 언급되는데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면류관을 회수해서 성전에 두고 네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결국 면류관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에는 이러한 면류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포로귀환한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라는 것은 마음에서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이 면류관이 됨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있었다는 것은 마음이 세상의 포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에서 번영을 이루는 것이 바벨론의 음녀로 비유된 것과도 같습니다. 포로로 잡힌 자들에게서 은과 금의 가치를 갖는 것은 각성과 해방입니다.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성과 이왕에 포로가 되었다면 해방되어야만 한다는 깨달음이 바로 은과 금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형편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포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성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고, 포로가 된 상태라면 해방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면류관은 싸움에서 이긴 자가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를 염두에 두자면 포로 되지 않는 싸움에서 이긴 자가 받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여기서 포로 됨이란 마음의 상태를 일컫습니다. 마음은 관계 속에서 포로가 됩니다. 나와 관계없는 대상에 대해 마음이 포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본문을 보면 싹에 대한 예언이 제사장과 묶여 나옵니다. 이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면류관을 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예수님께 마음을 보낸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처럼 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느냐는 것이 네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 제시됩니다. ‘헬대,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관계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평생 제사를 지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성전 삼아 제사를 지내야만

합니다.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성과 포로 된 상황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염두에 두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과 금으로 비유된 가장 가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회사에 가면 직장에서의 관계가 있고 집에 돌아가면 부모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는 사람에 대해서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명품에 대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 대해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에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과 관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를 맺되 포로가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관계하지만 서로에게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를 마음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자녀를 잘 키우라고 자녀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 자녀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언급된 헬데라는 이름의 뜻은 견고한 자라는 뜻입니다. 14절에 다시 언급될 때에는 헬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또 도비야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뜻이고, 여다야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뜻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요시아의 별명으로 나오는 헨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포로 되지 않는 마음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사업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에 불굴의 의지로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강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강한 마음은 절대 사업과의 관계에서 포로가 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사업은 이윤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이 사업과 관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도 목적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면류관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목적은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면류관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헬데라는 이름이 뜻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은 강해야 합니다. 강하면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비야의 이름이 뜻하는 대로 선하신 하나님께 포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포로 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포로가 될 때에 부부관계의 포로가 되지 않고, 사업을 해도 사업의 포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도비야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뜻입니다. 선하시다는 것은 가장 좋으시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좋으신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에서 기쁨을 구하는 동안 사업의 포

로가 됩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배우자에게 기쁨을 구하는 동안 배우자의 포로가 됩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에게 기쁨을 구하는 동안 자녀의 포로가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기쁨을 구하다보니 직장의 포로가 됩니다. 권력에서 기쁨을 구하다보니 권력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좋으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임을 알기에 세상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모습을 여다야라는 이름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요시아라는 이름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별명인 헨이 뜻하는 대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의 내용을 채워 가시리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봅니다. 헬렘 헬데는 강하고 견고하라는 뜻입니다. 도비야는 하나님께서 좋으시고 선하시다는 뜻입니다. 여다야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뜻이고 요시아와 헨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은혜를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포로가 되지 말고 면류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초강대국 바벨론이나 앗수르도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려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포로 됨으로써 하나님의 바람을 견딜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포로 된 마음은 하나님의 바람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포로 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떤 것에 마음이 매이든 하늘의 바람을 견딜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늘의 바람을 견딜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 포로 된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제사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포로 된 나를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하여, 세상의 포로 됨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헬데, 도비야, 여다야, 요시아의 이름을 기념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포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행여나 포로가 되었다면 해방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 같은 가치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제사장으로써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될 때에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날려가지 않고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마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져 갈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대해 포로 되는 삶을 십자가 생활화로 막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모든 관계에서 포로 됨이 사라지게 하시고 해방되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포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표시되는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관계를 맺을 때에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면류관을 받는 관계로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